



HUGEL

PRESS RELEASE

배포일자: 18.10.25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공시>

휴젤, 3분기 매출액 349억원, 영업이익 51억원 기록

- ▶ 보툴렉스, 이르면 올해말 대만시장 '시판 허가' 예상
- ▶ 웰라주 화장품 매출 급성장 등 호재 '가득'
- ▶ '300억원 규모' 대규모 자사주 매입...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 목적

<2018년 3분기 영업(잠정)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년 3 분기	2018 년 2 분기		2017 년 3 분기	
		전분기 실적	전분기대비 증감률	전년 동기 실적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매출액	34,936	42,864	-18.5%	41,570	-16.0%
영업이익	5,132	16,719	-69.3%	23,716	-78.4%
당기순이익	23,871	15,972	49.5%	19,269	23.9%

바이오 의약품 전문기업 휴젤(대표집행임원 손지훈)은 영업잠정실적 발표를 통해 2018년 3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은 349억 3,623만원, 영업이익 51억 3,235만원, 당기순이익 238억 7,131만원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6.0%, 78.4% 감소했으며, 영업이익률은 14.7%를 기록했다. 보툴리눔 독신 제품 보툴렉스의 아시아지역 매출은 유통망 재정비 과정에서 전년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남미, 러시아 등의 국가에서는 46% 이상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필러 제품 더채움(수출명 더말렉스)의 경우 유럽지역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483%로 고성장했고, 국내에서도 전년동기 대비 100% 성장하며 성장세가 지속됐다. 한편 회사 측은 이번 3분기부터 회사가 보유한 올릭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에 따른 지분 가치 상승으로 높은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휴젤은 연초에 국내 보툴리눔 독신업체 최초로 대만에서 보툴렉스 임상 3상을 종료했다. 여기에 중국 역시 올해 말 품목허가 신청이 예상되는 만큼 대만 임상 종료는 해외 매출 증대 및 본격적인 중화권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화장품 사업부의 경우 고농축, 고순도 히알루론산 스킨케어 '웰라주 리얼 HA 원데이키트' 제품이 면세점 히트상품으로 떠오르면서 화장품 매출이 급성장했다. 특히 4분기에는 원데이키트와 함께 사용 가능한 5,000개 캡슐이 함유된 '빛방울 세럼', 원데이키트 사용 후 바르는 '인텐시브 크림' 출시를 앞두



고 있어 성장세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RNAi 기반의 비대흉터치료제 'BMT101' 바이오 신약이 국내 임상 1상을 마치고 임상 2상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한 차원 더 부드러워진 HA필러 신제품 '더채움 스타일' 출시로 제품군을 다양화했다.

휴젤은 이와 함께 3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에 나섰다.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다. 휴젤 측은 주가 부양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손지훈 휴젤 대표집행임원은 "4분기에는 주력 제품인 보툴렉스와 더채움 필러 제품이 성수기를 맞이하고, 대만 신규시장 진출은 물론 남미, 러시아 등 주요 수출국에서의 성장과 함께 화장품 매출의 지속적 고성장이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주주친화 경영에 가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끝.>